

comprehension. Foreign Language Annals, 17, 345-48.



『潮騒』의 自然觀에 關한 一考察*

- 三島由紀夫 作品을 중심으로 -

張 晉 洙**

<차 례>	
I. 序 論	2) 동식물의 표상
II. 本 論	3. 자연관
1. 자연환경	1) 대자연
1) 시간적 자연	2) 인간과 환경
2) 공간적 자연	III. 結 論
2. 자연의 표상	참고문헌
1) 기상 표상	

I. 序 論

本稿는 三島由紀夫의 작품 『潮騒』 속에 나타난 日本의 海洋 自然觀을 살펴보고 연구하는 것을 論旨로 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 『金閣寺』에 나타난 山寺의 自然觀도 살펴보고 관찰하고자 한다. 자연관이란 자연에 대한 관념이나 견해를 일컫는다고 정의하고 있다. 자연은 거대한 천체의 별들로부터 시작하여 강 위에 다리를 건설하는 것 등 유형, 무

* 本論文은 1995년도 한국해양대학교 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掲載하기로 하고, 전반부는 어문연구 제6권(1996. 2)에 발표하였으며, 本稿에서는 전후반부 전부를 掲載함.

** 韓國海洋大學校 副教授 日文學

형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위즈워드에 의하면 자연은 인간이 지각하는 물리적 대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는 인간이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상상력은 자연에서 능력을 주고 조절시키며 인간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며, 이와같이 상상력은 자연을 창조하고 해설하는 동시에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인간에게 창조의 활력을 주는 것이라라고 하였다.¹⁾

三島由紀夫는 인생을 삶과 죽음의 순환적인 과정이라 생각하였고, 일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四季로서 일련의 주기로 나누었지만, 작품 『潮騒』에서는 그 중 봄, 여름 二季로만 구성되어 있다. 또 자연의 순환적인 과정을 성장, 성숙, 쇠퇴, 죽음 그리고 소생 등 유기적으로 동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이와같은 모든 변화의 이치를 자연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작가는 自然의 웅장함 앞에서 인간의 미력함을 느끼고, 自然을 절대적인 존재로 보며, 특히 바다를 敬畏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작품 『潮騒』를 통하여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 주위의 환경을 중요 대상으로 삼고, 그 위에 인간생활의 병폐를 치료해서 도덕성을 회복하려는 자연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대와 같이 공해와 오염 물질 속에 빠져있는 自然을 파괴하는 自然觀을 현대 日本人의 의식속에 주입시켜 大自然의 사랑으로 생활화 시킨 면을 고찰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이 작품은 주로 海洋 自然을 소재로 하였으며, 자연의 美를 감상하는 것은 물론 자연과 일체가 되어서 自然 조화에 따르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 주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本稿에서 (1) 自然環境 (2) 自然의 表象 (3) 自然觀으로 나누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李善榮 編, 문예사조사, 민음사, 1994; p. 69.

Ⅱ. 本 論

1. 自然環境

1) 時間的 自然

(1) 季節의 歲時

우선 이 작품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분류해 보면 초봄, 봄, 늦봄, 초여름, 여름, 늦여름으로 나눌 수 있으며, 月別로 나누어 보면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으로, 계절로 치자면 봄과 여름(春夏)의 二季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季節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묘사를 시의적절하게 문장 속에 가미시키고,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장면을 삽입시켜서 작품 전체에 自然에 대한 思想이 넘쳐흐르도록 묘사하고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丁度彼の静かな幸福が静かな自然との連關のなかで確かめられるやうに、今の彼の内部は自然のこの狂躁に、いひしれぬ親しみを感じるのであつた。」²⁾

(마침 그의 조용한 행복이 조용한 자연과의 연관 속에서 확인되듯이 지금의 그의 내부는 자연의 이 광조에 말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自然の聯關の片端に身を置けば、自然の正確な秩序がわからないはずはな

2) 三島由紀夫, 日本文學全集68(三島由紀夫集)『潮騒』, 新潮社, 1965. p. 231.

かつた。」³⁾

(자연의 관련 속에 몸을 두면 자연의 정확한 질서를 못 깨달을 리 없었다.)

특히 三島는 배경으로 나타난 자연 환경에의 풍경 묘사에서 관능적인 매혹을 느낀다고 하였고, 다른 작가가 그려낸 소설 속의 Love Scen(ラブ-シーン)과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 用例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私は風景に官能的な魅惑を感じた。今でも私の小説の中の風景描寫は、他の作家の小説の中のラブ-シーンと、同等の重みを持つてゐると云つてよい。」⁴⁾

그는 「歌島」라는 섬을 중심으로 지리적인 배경을 설명하였고, 약 6개월간의 二季의 歲時와 자연에 대한 문학적인 정서, 그리고 계절적인 연관을 통하여 자연의 풍부한 아름다움으로 문학적인 표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만남과 헤어짐, 젊음과 늙음, 삶과 죽음의 반복적인 순환의 질서가 이 속에 내재되어 있다.

이 작품 속의 내용은 二季의 요소와 孤島의 생활상인 어촌에서의 직업적인 어부의 일상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청춘남녀의 사랑과 인간의 삶을 구조적으로 구성해 내고 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若者は彼をとりまくこの豊饒な自然と、彼自身との無上の調和を感じた。彼の深く吸ふ息は、自然をつくりなす目に見えぬものの一部が、若者の

3)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8.

4) 新潮社(編), 『三島由紀夫全集』30(評論), “私の遍歴時代”, p. 469.

體の深みにまで滲み入るやうに思はれ,」⁵⁾

(젊은이는 그를 에워싼 이 풍요한 자연과 그 자신과의 이 이상 더 없는 조화를 느꼈다. 그가 깊이 들이쉬는 호흡은 자연을 창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일부분이 자기의 체내 깊숙이 스며들 듯 느껴졌으며,)

季節의 속절없는 변화는 세월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와 시시각각 달라지는 자연의 색채 변화로 잘 나타나 있다. 동경하는 마음은 자연현상인 四季의 규칙적인 변화에 따라 긴밀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여기서 작가는 계절의 어김없는 변화와 순환,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따른 계절적인 교대로 변화와 자연적인 이동을 문학적인 정서로 나타내려 하였다. 즉, 인간이 들이쉬는 호흡조차 자연을 창조한 신의 영험에 달려 있으며, 삼라만상이 신의 조화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프라이는 자연을 순환적인 상징으로 보통 네 개의 주된 양상으로 나누고 있다. 즉, 일년은 사계절(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의 네 시기(아침, 정오, 저녁, 밤), 물의 주기의 네개의 측면(비, 샘, 강, 바다나 눈), 인생의 네 시기(청년, 장년, 노년, 죽음) 등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⁶⁾

반면 작가는 『潮騒』에서 時空性으로 歲時를 3월부터 8월 사이의 二季로 끝내고 있다.

그렇지만 三島의 다른 작품 『金閣寺』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四季가 잘 나타나 있다. 필자는 『金閣寺』의 四季도 조명하여 보고 관찰하여 山寺의 계절도 살펴 보고자 한다.

이어서 먼저 三島由紀夫의 『潮騒』와 『金閣寺』의 작품 속에서 문학의 서사로 기술된 문장을 필자는 계절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5)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17.

6) N 프라이, 批評의 解剖, 한길사, 1995, p. 223.

① 초봄

초봄을 흔히 청춘, 첫사랑의 의미를 지닌 계절이라 말하기도 하고, 따사로운 희망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흔히 남녀의 만남과 사랑은 주로 초봄에 이루어진다고들 한다. 또한 초봄에는 긴 겨울동안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모든 삼라만상이 생동하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또, 계곡에서는 얼음이 녹아 맑은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도 섬에서 듣는 해변가의 찬바람 소리는 아직 춥게만 느껴지는 계절이다.

이 작품에서 「歌島」섬을 배경으로 하여 섬과 바다 그리고 이른 봄의 歲時가 문학적인 表象으로 잘 나타나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春の彼岸にひらく槍鳥賊の漁期を前に、すでにをはり近づいていた。」⁷⁾

(춘분 전후에 시작되는 오징어잡이 낚시 어기를 앞두고 이미 마지막 고비에 들어서고 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右方の斷崖高く燈臺がすでに光り納めてある。早春の褐色の木々の下に、伊良湖水道の波が上げる飛沫は、曇つた朝景色のなかの鮮やかな白である。」⁸⁾

(오른쪽 절벽 높이 등대는 이미 빛을 거두고 있다. 이른봄 갈색나무들 아래 이라꼬 수로의 파도가 솟구치는 비말은 흐린 새벽 풍경 속에 선명한 흰살을 드러내 주고 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寒い西風はかなり強かつたが、少女は作業にほてつた顔をそれにさら

7)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00.

8)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00.



し、……若者はわざわざ、少女の前をとほつた。子供がめづらしいものを見るやうに、正面に立つてまともに少女を見た。」⁹⁾

(차디찬 서풍은 어지간히 새웠으나 이마엔 땀이 맺혀져 있었고 뺨은 붉은 스투레 물들여져 있었다.……젊은이는 일부러 소녀 앞으로 째싸게 걸어들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진기한 물건이라도 바라보듯 정면에 서서 똑바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의 用例를 들어 보자.

「この早春の空が、丁度きらめいてゐる硝子窓のやうに内部を見せないが、内部には火と破滅を隠してゐることを信じようとした。」¹⁰⁾

(이 이른 봄의 하늘은 마치 반짝이는 유리창처럼 내부를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에는 불과 파멸이 숨겨져 있는 것을 믿으려 했다.)

초봄의 「歌島」 섬의 아직 추운 날씨에 파도가 솟구치는 해변가의 정경을 잘 그려보여주고 있으며, 절기상 초봄에 남녀가 처음 만나 첫사랑을 나누게 되는 장면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또 작품 『金閣寺』에서는 초봄에 하늘이 맑고 나무 사이로 새어들어 오는 햇빛의 희롱하는 듯한 정경을 따스하게 잘 묘사해 내고 있다. 초봄의 정경이 해양의 「歌島」 섬과 山寺에서 비교적 잘 표현되고 있다.

② 봄(春)

초봄을 지나 보낸 후 찾아드는 봄의 시간적인 면을 살펴보자. 흔히 봄은 부드러운 봄 바람이 불고, 온갖 새 잎이 피어나는 계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봄은 꽃, 나비, 봄 바람을 생각해 만드는 계절이라고도 한다. 또 벌나비가 날고, 만산의 새들이 우는 소리는 서로 짝을 찾기위해 애정을 표현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이 시기를 사랑의 계절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歌島」에서의 봄은 여느 육지의 봄과는 달리 모든

9)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7

10)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32.

면에서 바다와 연계되어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ほころびかけてるた島の乏しいさくらのつぼみは、このおかげでのこらず落ちてしまふだらうと思はれた。前日、時ならぬ濕つた風が帆布にまとはりつき、ふしぎな夕焼が空をおほつた。」¹¹⁾

(봉오리가 맺기 시작한 섬의 벚꽃은 이 바람때문에 모조리 떨어 지지나 않을까 염려되었다. 전날 때 아닌 눅눅한 바람이 돛속에 감겨들고 기묘한 저녁놀이 하늘을 뒤덮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裏の家の貧しいつつじの花が、下方の海の色を葉かげに透かしてあるだけである。」¹²⁾

(뒷집 진달래가 저 아래 바닷빛을 그 가장귀 잎 사이에 내비쳐 주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의 用例를 들어 보자.

「うらかな春の午後も、よくかりこまれたしばふもここにはなかつた。しかしこの荒涼とした自然は、春の午さがりのしばふよりも、もつと私の心に媚び、私の存在に親密なものであつた。」¹³⁾

(화창한 봄날 오후도 잘 손질된 잔디도 여기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 황량한 자연은 봄날 오후의 잔디보다도 더욱 나에게 교태를 부려 나라는 존재에 친밀해졌다.)

특히 봄은 애욕이나 즐거움을 안겨준다. 또 봄은 자연이 규칙적으로 순환하는 반복성과 인간 세계와의 무상한 변화와 꽃이 피고 떨어지는

11)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28.

12)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4.

13)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97.

순환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상상의 Image(이미지)를 펼치도록 해 주는 계절이다. 그리고 봄은 봄꽃, 나비, 새소리, 풀벌레, 봄바람 등의 자연과 깊이 관계를 맺게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섬에서 봄이 오면 벚꽃이 바람 때문에落花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도서 기후의 특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작품 『金闍寺』에서 는 절이 한가하여 화창한 봄날 잔디 위에서 따뜻한 봄 햇살을 즐기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해양에서의 봄이나 山寺의 봄도 역시 한가한 모습을 잘 표출시키려 하였다.

③ 늦봄

늦봄은 애욕, 즐거움 같은 기분이 나게 만들어 주는 계절이기도 하며, 인간 세계의 경쾌함과 감동 의욕을 갖게 하는 계절이다. 또한 관능적인 황홀한 사랑의 체험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며, 바로 늦봄을 배경으로 사람을 추상적인 동경 속으로 빠지게 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늦은 봄의 用例를 들어 보자.

「日のささない家であつたが、晩春ののどかな空は、隣家の土蔵の屋根に區切られて仰がれた。」¹⁴⁾

(별이 들지 않는 집이었지만, 늦봄 한가로운 하늘이 이웃집 팥너머로 바라보였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とかうするうちに春は終りかけてゐた。木々は緑をまし、東側の岩壁に群生してゐる濱木綿の花期にはまだ早かつたが、島のそこかしこがさまざまな花で彩られた。」¹⁵⁾

(이러구러하는 동안에 봄은 어느새 막바지 고비에 이르고 있었다. 수목들

14)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3.

15)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0.

은 나날이 녹색으로 짙어졌다. 동쪽 암벽에 무리지어 피는 文珠蘭을 비롯
해, 계절로는 좀 이르지만 섬은 여러가지 꽃들로 장식되었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의 用例를 들어 보자.

「晩春の午後には、明るさと空気のものうさのあまりに、こんな事が起りがちである。つまり私が二重になり、私の分身があらかじめ私の行爲を模倣し、いざ私が決行するときには見えない私自身の姿を、ありありと見せてくれると謂つた事が。」¹⁶⁾

(늦은 봄날 오후에는 밝음과 공기의 나른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 나기 쉽다. 즉 내가 이중으로 겹쳐져 나의 분신이 사전에 내 행위를 모방하여 막상 내가 결행할 때는 보이지 않게 될 나 자신의 모습을 똑똑하게 보여 준다든가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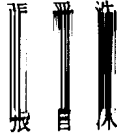
화창한 봄날 늦은 오후의 한가한 섬 마을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산책을 하거나 졸음을 이겨내려 애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늦은 봄에 수목 빛이 짙어가는 모습과 문주란과 같은 야생꽃들이 피어 있는 섬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 『金閣寺』에서의 산사의 늦봄 정경은 한가하고 조용한 가운데 주인공이 어떠한 결심을 결행하려는 의지를 표현해 내고 있다.

④ 초여름

초여름은 바다와 강, 푸른 산이나 新綠의 초목과 흰구름, 여름 철새, 푸른 전원 등을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다. 그래서 작품 『潮騒』에서 사나이들은 바다로 나가서 일상업무로 고기를 잡거나 기범선을 타고 세계를 마음껏 누비며 다닌다. 또 여자들은 물속에 들어가 해초를 따고, 조개, 해삼, 소라 등을 잡으러 물길질을 한다.

초여름을 그린 用例를 들어 보자.

16)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447.



「男たちは漁へ出る。機帆船に乗つてさまざまな港へ荷を運ぶ。さういふ世界の廣がりとは縁がない女たちは、飯を炊き、……夏が來ると水に潛いて、深い海の底へと下りてゆく。」¹⁷⁾

(사나이들은 바다에 나간다. 기법선을 타고 여러 항구에 짐을 부린다. 그러한 넓은 세계와 인연이 없는 여자들은 밥을 짓고,…… 여름이 오면 물속에 들어가 해녀 노릇을 한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いつのまにかその陽氣で練達な海女たちの一人に、數へられてゐる自分を發見しておどろくのであつた。歌島の海女は六月七月にもつともはたらいた。」¹⁸⁾

(어느새 그 명랑하고 숙달된 해녀의 한 사람 속에 끼여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는 놀라는 것이었다. 우다지마의 해녀는 유월과 칠월에 가장 많이 일했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의 用例를 들어 보자.

「授業をなほざりにしながら、私は晩春から初夏にかけての美しい日々を、金のかからぬ寺々や社の見物にすごした。足の及ぶかぎり歩いたのである。」¹⁹⁾

(수업을 태만히 하면서 나는 늦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아름다운 나날을 돈이 안드는 절이나 신사를 구경하면서 소모했다. 발길이 닿는 데까지 돌아다녔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こんなときには青春(この言葉を俺はひどく正直に使ふのだが)の俺の身の上に、信ずべからざる事件が起つた。寺の檀家の子で、その美貌が名高く、

17)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30.

18)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70.

19)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446.

神戸の女學校を出てゐる裕福な娘が、ふとしたことから、俺に愛を打明けた。しばらく俺は自分の耳を信じてゐ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²⁰⁾
 (이런 때에 청춘<이 말을 나는 매우 정직하게 쓰고 있지만>인 내 신상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 절의 단가의 딸로 그 미모 때문에 이름이 났고 고오베(神戸)의 여학교를 나온 유복한 처녀가 우연한 일로 내게 사랑을 고백한 거야, 잠시동안 나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었지.)

작품 『潮騒』에서 섬의 초여름에는 사람들은 생활터전에서 작업에 열중하느라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나 작품 『金閣寺』에서 보면 山寺의 초여름에 주인공은 한적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山寺나 神社를 찾아다니면서 낭만을 즐기고 있다.

또 초여름은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기도 한 반면 인생으로 치면 청춘이고, 사랑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고백하고, 감정도 정열적으로 느끼도록 서로 확인하는 계절이다.

⑤ 여름

여름의 表象은 사계절 중 가장 덥고, 원숙하게 잘 자라며, 인간이 자연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며, 태양처럼 밝고, 뜨겁고 무성한 숲이 우거지는 등의 정경을 표상하고 있다.

또 자연의 세계에서는 푸른 산과 바다, 그리고 천둥, 번개, 태풍, 홍수, 가뭄 등 自然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들이 여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름의 用例를 들어보자.

「沖なわが、その半徑内に入る颱風の襲來が報ぜられた。一刻も早く出帆して、颱風の圏外へのがれるために、船は早朝に港を出た。」²¹⁾
 (오기나와가 그 반경 안에 들어간 태풍 경보가 알려졌다. 한시바삐 출범하여 태풍권 밖으로 도피하기 위해 배는 아침 일찍 항구를 떠났다.)

20)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67.

21)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82.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運天は沖なわ島の北端にあつて、戦時中米軍が最初に上陸した地点である。……港に沿うた廣いコンクリートの舗道には、亞熱帶の夏の日にかがやいて、數へ切れぬほどの車が往來してゐた。」²²⁾
 (운뎃은 오기나와 섬에 있는데, 전시에 미군이 최초로 상륙한 지점이다.……해안을 끼고 뻗어나간 넓은 콘크리트 포도 위에는 아열대의 여름 태양이 쏟아지고, 수없는 자동차들이 왕래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의 用例를 들어 보자.

「小さな夏の花を見て、それが朝露に濡れておぼろな光りを放つてゐるやうに見えるとき、金閣のやうに美しい、と私は思つた。また、雲が山のむかうに立ちほだかり、雷を含んで暗澹としたその縁だけを、金色にかがやかせてゐるのを見ると、こんな壯大さが金閣を思はせた。」²³⁾
 (자그마한 여름꽃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희미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였을 때, 나는 긴가꾸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또 천둥 번개를 안고 있는 시커먼 구름이 산너머 하늘에 잔뜩 모여 있고, 그 어두운 가장자리만을 금빛으로 빛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도 그 웅장함이 긴가꾸를 생각해 했다.)

작품 『潮騒』에는 한국의 6·25 전쟁 때문에 오기나와 섬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전쟁으로 인한 열기로 분주하고, 더욱이나 여름 태양이 더위를 뽐어 열기가 더해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특히 전쟁은 격동기의 세계 질서의 재편과 연관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충격과 시련을 주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주고 있다.

또 작품 『潮騒』에서 主人公은 태풍, 홍수, 가뭄과 같은 천재 때문에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는 파괴와 시련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계절

22)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81.

23)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13.

이 여름이라 생각하고 있다.

또한, 작품 『金閣寺』에서는 격렬한 태풍이 인간의 심리를 격앙하게 만들어 여름의 긴박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천둥, 번개, 시커먼 구름이 한층 더 「金閣寺」를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고, 여름을 웅장하게 만들어서,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통하여 삶의 가치를 더욱 더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

여름은 「歌島」 섬이나 山寺에서도 인간은 삶의 의지에 충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늦여름

늦여름의 대표적인 정경은 흰구름, 늦여름의 따가운 햇빛 그리고 서늘한 밤공기 같은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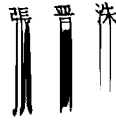
늦여름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낸 환경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연속으로 동화되고 일치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또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주는 활력의 계절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름을 인간적 삶에서의 걱정의 계절이라고 말하며 모든 삼라만상이 격동하고 있는 계절이라고도 한다.

늦여름에 대해 묘사한 用例를 들어 보자.

「村へ下りてゆく道端の家では、家の前にむしろを敷き、胡麻、小豆、大豆などを干してゐた。胡麻の青い小さな種子は、晩夏の日を浴びて、新鮮な色をした席の粗い目の上に、ひとつひとつ可愛らしい紡錘形の影を添へてゐた。」²⁴⁾

(마을로 내려가는 길가 집에서는 집 앞에 넓은 명석을 깔고, 참깨·콩·팥 등을 말리고 있었다. 참깨의 그 푸른 조그마한 씨앗들은 늦여름 햇빛을 받아 신선한 빛깔을 한 명석 위에 하나하나 귀여운 반추형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다.)

24)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89.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神社の裏手から松林の道へのぼつた二人は、夜の涼しさを今さらに味はつた。すっかり暮れてゐるのにひぐらしが啼いてゐる。」²⁵⁾

(신사 뒷길로 해서 송림으로 들어선 두사람은 서늘한 밤공기를 새삼스럽게 맛보았다. 해도 완전히 지고 어둠이 짙은데도 쓰르라미가 울고 있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의 用例를 들어 보자.

「晩夏のしんとした日光が、究竟頂の屋根に金箔を貼り、直下にふりそそぐ光りは、金閣の内部を夜のやうな闇で充たした。……やがて焼夷弾の火に焼かれるその運命は、私たちの運命にすり寄つて來た。金閣はあるひは私たちより先に滅びるかもしれないのだ。すると金閣は私たちと同じ生を生きてゐるやうに思はれた。」²⁶⁾

(늦여름의 눈부신 햇빛이 구경정 지붕에 금박을 입히고, 아래 쪽으로 쏟아지는 빛은 긴까꾸 내부를 밤과 같은 어둠으로 가득 채웠다. ……멀지않아 소이탄에 불타버릴 그 운명은 우리들의 운명에 슬며시 다가왔다. 긴까꾸는 어쩌면 우리들보다 먼저 망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보니 긴까꾸는 우리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작품 『潮騒』에서 참깨, 콩, 팥등을 명석 위에 깔아놓고, 늦여름 햇볕에 말리는 모습은 금방 영상으로 본듯한 한가한 시골의 풍경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특히 「金閣寺」의 늦은 여름밤은 그 정박감으로 주인공의 파멸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하여서 얼마 있지않아 오랫동안 전통과 웅장함을 보여 주었던 「金閣寺」 절이 곧 불타버릴 운명에 놓여 있음을 미리 예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섬의 늦여름은 사랑이나 열매를 곧 맺게 해주는 희망을 갖게하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金閣寺」에서의 늦여름은 어떠한 결행을 준비하는 계절이라고 여겨진다.

25)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94.

26)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30.

⑦ 가을

작품 『潮騒』에서는 시간적으로 봄, 여름으로 계절이 끝난다. 그러므로 작품 『金閣寺』에서 가을, 겨울의 정취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가을은 결실, 풍요와 완성의 의미를 가지는 계절이라고 흔히 말하며, 단풍, 낙엽, 서리, 밝은 달, 가을 바람 등을 생각나게 하는 계절이라고도 한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슬픔, 추억, 그리움이 생각나고, 또 외로운 인생의 늙음, 고독, 죽음 등의 슬프고 쓸쓸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계절이라고도 한다.

밝은 달밤, 가을 바람 속에서 구슬프게 우는 풀벌레 소리는 슬픔과 그리움,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계절이다. 그리고 유난히 달과 별이 밝고, 쓰르라미나 풀벌레가 애절하게 우는 가을 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그리운 사람이나 떠난 고향을 생각나게 해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가을은 우리로 하여금 애절한 비감과 향수 등의 서정을 갖게 만드는 계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작품 『金閣寺』에서 가을의 用例를 들어 보자.

「十月, 十一月, 十二月の期間, 夜の十一時から朝の十時ごろまで, 規則正しく, 保津川から上る霧がこの地方を長なく包んだ。……京都を發つときあのやうにいきいきとしてゐた私の心は, 今また死者たちの追憶へ導かれた。有爲子や父や鶴川の思ひ出は, 云ふに云はれぬやさしさを私の裡に呼びさまし, 私は死者をしか人間として愛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かと疑はれた。」²⁷⁾

(10월, 11월, 12월은 밤 11시부터 아침 10시경까지 거의 규칙적으로 호즈강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이 지방을 구석구석까지 감싼다.……교오도를 출발할 때 그렇게도 들떠 있던 내 마음은 이제 다시 죽은 사람들의 추억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우이꼬와 아버지, 그리고 쓰루가와에 대한 추억은 말할 수 없는 다정함을 내 내부에서 불러 일으켜, 나는 죽은 자만을 인간으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27)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432.

또 작품 『金闍寺』에서의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晩秋の燒聞をさえざえととつんざいて、裏庭の鶏鳴が白くきこえた。……夜明け前の冷氣のなかに、はねつけるやうなはだざはりをしてゐた。」²⁸⁾
(늦가을 새벽의 어둠 속을 냉랭하게 꿰뚫고 뒷마당에서 닭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 새벽녘 냉기 속에서 반항하는 것처럼 섬뜩한 감촉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人生은 죽음이 있고, 無常하게 슬픔만 남기고 떠나간다는 사실이 이 계절에 깨닫게 된다. 세상에는 적막과 죽음의 不可思議만이 남고 말리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가을은 흔히 낙엽과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속으로 귀의하게 된다는 서글픔을 갖게 되는 계절적 특성을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계절이다.

또한, 가을은 결실과 완성이 성취되는 계절이고, 풍요가 넘치는 계절이기도 하다.

⑨ 겨울

흔히 겨울은 찬바람, 눈, 얼음을 표상하고 쌀쌀한 여인, 비정한 사람, 고통 받는 여인을 상상한다. 또한, 겨울은 흰 눈이 내리는 계절이다. 새하얀 눈은 청결하고, 깨끗한 정경으로 고결함과 순수한 면을 나타낸다. 흰 눈이 내리면 모든 세상의 물건이 하얀 상태로 변화하여 평화와 淸淨을 느끼게 해주는 계절이고, 인간은 그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더럽고 추한 것도 아름답고 예쁜 것도 모두 변하여 하얀 은세계로 바뀌어진다. 눈이 내릴 때는 누구나 어렸을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함박눈을 받아 먹었던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 또 눈이 내리면 산이나 숲 속에 먹을 것이 없어 온갖 동물과 새들이 먹이를 구하러 인가로 내려오는 계절이기도 하다.

28) 三島由紀夫, 『金闍寺』前掲書, p. 361.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 用例를 들어 보자.

「戰後最初の冬になつた。或る金曜の晩から雪が降りはじめ、土曜にも降りつづけた。……雪は暢達な速度で降つた。子供のころよくさうしたものだが、私は今も天へむかつて大きく口をあけた。」²⁹⁾

(전후 첫번째 겨울이 되었다. 어느 금요일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토요일에도 계속 내렸다.…… 눈은 펑펑 쏟아졌다. 어릴 때 곧잘 그렇게 했듯이 나는 지금도 하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렸다.)

또 다른 『金閣寺』에서의 用例를 들어 보자.

「事實、立體的な金閣は、雪のおかげで、何事をも挑みかけない平面的な金閣、畫中の金閣になつてゐた。……をちこちの松に積む雪は壯麗だつた。」³⁰⁾
(사실 입체적인 긴까꾸는 눈 때문에 아무것에도 도전하지 않는 평면적인 긴까꾸, 그림속의 긴까꾸로 되어 있었다.……여기저기의 소나무에 쌓인 눈은 장관이었다.)

작품 『金閣寺』에서의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第一に、寺の生活が樂になつたのである。金閣がいつれ焼けると思ふと、耐へがたい物事も耐へやすくなつた。……自然とすら私は和解した。」³¹⁾
(첫째로 절에서의 생활이 마음 편해진 것이다. 긴까꾸가 멀지 않아 타버린다고 생각하면 참기 어려운 일도 참기가 수월해졌다.……자연과도 나는 화해했다.)

작품 『金閣寺』에서 주인공은 눈이 쌓인 「金閣寺」 절이 더욱 장관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장차 멀지 않아서 불태워 버리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金閣寺」의 모든 것이 더욱 아름답고 찬란하게 보

29)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50.

30)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51.

31)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445.

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인공은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망각하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주인공이 「金閣寺」 절에서 지내는 동안 어렵고 고된 생활,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갈등, 비참함, 고독과 어려움을 잊고 싶어 하였을 것이다. 흰 눈이 내린다는 정서는 사실적 묘사를 통하여 현실 세계의 비참함을 눈속에 묻어버리고, 세상을 정화시켜 밝고 깨끗한 흰 눈 같은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작품 『潮騷』와 『金閣寺』의 자연관을 살펴 보았다. 봄은 첫 사랑과 시련이 있었고, 여름은 원숙하고 활기차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약진하는 계절이다. 가을은 곡식을 수확하고 풍요한 가운데 죽음과 서글픔이 있고, 人生無常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겨울은 모습을 감추고 자연의 적막속으로 파묻히지만 곧 새봄이 오면 다시 소생하리라는 기대를 부풀게 하는 四季에 대한 자연의 순환을 깨닫게 해준다.

2) 空間的 自然

(1) 萬象 및 風物

작품 『潮騷』에 그려진 풍물, 四時萬象, 구름, 달, 꽃 자연현상의 변화 등은 그로부터 받게 되는 정서적인 감동으로 인하여 인간의 의지 자체가 자연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알게해 주는 것이다.

또 자연에 대한 무서움의 관념은 사라지고, 산과 바다를 찾아 자연을 친근하게 느끼는 감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을 가깝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연 속에 동화되어 침체되고 무위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려는 자연관이 잘 나타나 있다.

작품 『潮騷』에서는 오로지 자연에 깊이 몰입하여 자신의 본성을 지키며 즐겁게 만들어 주는 자연, 또는 친근하게 여기는 자연이라는 주인공의 생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품 『潮騷』 속에 나타난 자연 묘사를 통해 자연을 친근하게

함으로써 그 자연에 대한 경치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敘情을 매개체로 자연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① 歌島섬

작품 『潮騒』 내용의 발단은 이 섬에서 시작되고 무대 설정 역시 이 「歌島」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섬은 천혜의 고도로 자연과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등대가 있고 해변가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부로 일을 하거나 여인들은 바다에서 해삼 조개등을 따는 일로 생활하고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歌島は人口千四百，周圍一里に充たない小島である。」³²⁾

(歌島는 인구 천 사백, 그 둘레는 십리도 못되는 작은 섬이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この島に生れこの島に育つて，何ものよりも島を愛して來た若者が。」³³⁾

(이 섬에서 태어나고 이 섬에서 자라나 누구 보다도 섬을 사랑해 온 新治가.)

「歌島」를 바다 가운데 낙원처럼 신비스러운 섬으로 묘사했고, 끝없는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歌島」 사람들은 이곳의 自然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작가 三島由紀夫가 실제의 섬 「新島」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며 신비스러운 섬이 주무대가 되어 있으며, 낭만이 한없이 펼쳐져 있다.

32)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5.

33)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77.

② 등대

등대는 「歌島」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곳이다. 이 등대 내부를 보면 螺旋形 층계를 올라 맨 꼭대기의 고독한 등근 방안에 이 등대의 光源이 고요히 놓여 있다. 방은 나무벽으로 둘러쳐져 있고, 오백 와트의 축광으로 불빛을 확대시키는 두꺼운 렌즈가 천천히 돌고 있는 곳이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眺めのもつとも美しいもう一つの場所は、島の東山の頂きに近い燈臺である。燈臺の立つてゐる斷崖の下には、伊良湖水道の海流の響きが絶えなかつた。伊勢海と太平洋をつなぐこのけふさくな海門は、風のある日には、いくつもの渦を卷いた。水道を隔てて、渥美半島の端が迫つてをり、その石の多い荒涼とした波打際に、伊良湖崎の小さな無人の燈臺が立つてゐた。」³⁴⁾

(전망도 가장 아름다운 또 한군데 장소는 섬의 東山 꼭대기에 가까운 등대이다. 이 등대가 서있는 절벽 아래에는 伊良湖 水路의 해류 소리가 끊임없다. 伊勢바다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이 협소한 바다 문은, 바람이 부는 날이면 온통 소용돌이쳤다. 수로를 격하여 아쓰미 반도의 끝이 다가와 있고, 돌이 많은 황량한 바닷가에 伊良湖崎의 조그만 무인 등대가 서있다.)

이 등대는 주인공 新治와 初江이 우연히 만나 사랑을 속삭인 곳이다. 또 두사람이 결혼을 약속 받았을 때, 찾아와 미래를 설계한 곳이다. 이 두사람이 등대의 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며 살도록 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등대처럼 「歌島」 섬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이 솟아 오르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다.

③ 八代 神社

이 神社는 아주 신비한 환상의 장소로서 생각하게 만들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위험한 사태를 막아 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장소로서, 그 신비스러움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34)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5.

그 用例를 들어 보자.

「二百段の石段を昇つて、一雙の石の唐獅子に成られた島居のところで見返へると、……もし海難に遭つて救はれれば、何よりも先に、ここの社に奉納金を捧げるのであつた。」³⁵⁾

(이백 개의 돌층계를 올라 한 쌍의 돌 사자가 있는 島居 앞에서 바라보면 …… 간혹 풍랑을 만나 살아 나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神社에 다 봉납금을 바치는 것이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八代神社には六十六面の銅鏡の寶があつた。八世紀頃の葡萄鏡もあれば、日本に十五六面しかない六朝時代の鏡のコピイもあつた。」³⁶⁾

(八代 神社에는 육십육면의 銅鏡 보물이 있는가 하면, 또 팔세기 경의 葡萄鏡도 있으며, 日本에 십오, 육개 밖에 없는 六朝시대의 거울 모조품도 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鏡の裏面に彫られた鹿やりすたちは、遠い昔、波斯の森のなかから、永い陸路や、八重の潮路をたどつて、世界の半ばを族して來て、今この島に、住みならへてゐるのであつた。」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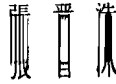
(거울 뒷면에 새겨진 사슴이나 다람쥐들은 아득한 옛날 페르샤 숲속으로부터 긴긴 육로와 바닷길을 거쳐, 거의 지구의 반이나 되는 여행길 끝에 이 섬에까지 와서는 고이 살아오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이 神社를 더욱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곳으로 설정하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위험한 사태로부터 막아주도록 비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섬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도록 신에게 호소

35)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5.

36)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5.

37)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195.



하는 聖所로 묘사하여 그 신비로움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또 八代神社의 부적은 항해에서의 안전을 보장해 주기도 하고, 自然과 비교했을 때의 인간의 약하고 부족함을 무엇으론가 의지해 보도록 하고, 채워보려는 마음을 심리적으로 보상 받도록 해주려 하고 있다.

④ 觀的哨 (초소)

작품 『潮騒』에서 觀的哨를 나타낸 것은 작가가 이 작품 속에서 사랑의 경우도 전쟁과 같이 싸워서 쟁취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전쟁 후에 남겨진 초소는 新治와 初江이 서로 마음을 엿보고 염탐하는 장소로 등장시킨 곳이라고 생각된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松林の砂地のかなたに、三階建の鐵筋コンクリートの觀的哨が見えだした。この白い廢墟は、周圍の人氣のない、自然の靜寂の中に妖しく見えた。伊良湖崎のむかう側の小中山試射場から、射出される試射砲の着弾點を、二階のバルコニーで雙眼鏡を目にあててゐる兵が確認する。」³⁸⁾

(송림 저쪽에 삼층집 철근 콘크리트의 초소가 보였다. 그 새하얀 폐허는 주위의 인기척 없는 자연의 정적 속에서 괴상하게 보였다. 伊色湖 수로 저쪽 小中山 試射場에서 쏘아댄 시사포의 착탄점을 이층 발코니에 서서 쌍안경을 눈에 대고 병사가 확인한다.)

그래서 두사람은 서로 이 觀的哨에서 상대의 마음을 엿보았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시사포를 쏘아 착탄점이 상대의 마음속을 정확히 맞힌 것을 확인하였고, 결국 두사람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된다.

⑤ 辯天押

조그만 동굴 입구가 있고 삼층 동굴이 해변가를 관통하고 있다. 동

38)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08.

쪽 해안으로부터 밀려든 물결이 상하로 통하는 깊은 갭도 밀바닥에 이어져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岬の西側の岸は、石灰石の岩ばかりで、それをつたつてゆくと、歌島のもつとも神秘的な場所の一つである岩穴の入口にたどりついた。」³⁹⁾

(해변가의 서쪽 海岸은 석회암 바위 투성이로 그 바위를 따라가면 歌島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장소의 하나인 동굴의 입구로 나온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歌島の海女は六月七月にもつとも働いた。根據地は辨天岬の東側のニワの濱である。」⁴⁰⁾

(우다지마의 해녀는 유월과 칠월에 가장 많이 일했다. 근거지는 벤덴미사키의 동쪽 바닷가다.)

辨天岬에서 동굴이 등장하므로 신비로움이 한층 더 북돋워진다. 밀려든 물결처럼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듯이 新治 동생 히로시에게 섬에서 일어나는 소문의 물결을 이곳에서 듣게 되었고, 또 소문이 물결처럼 밀려 나갈 것을 연상하도록 하고 있다.

⑥ 데기왕자 고분

데기왕자 고분의 전설은 이 섬을 천사가 내려와 살았던 곳으로 신성화 시킨다. 그로 인해 섬은 왕자가 섬처녀에게 찾아와서 신데렐라로 만들어 주고 아주 살기좋은 곳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복고주의 사상을 전수코자 이와 같은 고분을 등장시켜 더욱 신비스럽고 우아한 삶을 표현하려 하였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39)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47.

40)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70.

「頂きの七本の古松のあひだに、小さな鳥居と祠があつた。デキ王子の傳説は模糊としてゐた。デキといふその奇妙な御名さへ何語とも知れなかつた。……多分デキ王子は、知られざる土地に天降つた天使であつた。……そこでその屍は何の物語も残さずに、美しい古里の濱と八丈ヶ島を見下ろす陵に埋められたのである。」⁴¹⁾

(섬 맨 꼭대기에 서있는 일곱 개의 고송 사이에 조그만 鳥居와 사당이 있었다. <데끼왕자>의 전설은 모호했다. 데끼라는 그 기묘한 이름마저 뜻이 분명치 않았다.…… 아마 데끼 왕자는 하늘로부터 미지의 땅에 내려온 천사임에 틀림없다.…… 그래 그 시체는 아무 얘기도 남기지 않은 채 아름다운 古里 해안과 八丈을 내려다 보는 고분에 묻혀있던 것이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とまれ古い昔にどこかの遙かな國の王子が、黄金の船に乗つてこの島に流れついた。王子は島の良を娶り、死んだのちは陵に埋められたのである。」⁴²⁾
(그건 어찌됐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먼 나라의 왕자가 황금배를 타고 이 섬에 표류되어 왔다. 왕자는 섬 처녀와 결혼하여 살다가 죽은 후 이곳에 파묻힌 것이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島の南のデキ王子の古墳まで行つたりする。古墳はどこからどこまでといふ境界がはつきりしないが、頂きの七本の古松のあひだに、小さな鳥居と祠があつた。」⁴³⁾

(섬 남쪽 <데끼왕자> 고분까지 가기도 했다. 이 고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경계선인지 뚜렷하지 않았으나, 맨 꼭대기에 서 있는 일곱 개의 고송 사이에 조그마한 鳥居와 사당이 있었다.)

이 섬은 천사가 내려와 살게된 곳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또 왕자가

41)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61

42)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62.

43)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61.

섬처녀에게 찾아와서 신데렐라로 만들어 주는 아주 살기좋은 낙원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복고주의 사상을 전수코자 고분을 등장시키고 있다. 또 이로써 남녀의 결실은 이미 맺어지게 될 것임을 예시해 주며, 주인공 新治와 初江이 서로 만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여주인공 初江의 꿈에 新治가 왕자로 나타나게끔 만든다.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만들어 주는 예시적인 신비로운 곳으로 이 古墳을 등장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묘지

묘지는 白骨과 魂이 묻힌 곳이다. 백골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혼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동양 사람들은 魂魄 가운데서 사람이 죽으면 魄은 지하의 땅속으로 가고, 魂은 허공을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전에 아무리 훌륭하였고 용맹스러웠을지라도, 또 천하고 악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묘지의 지하에 묻히게 된다. 묘지는 우리에게 人生無常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작품 『潮騒』에서 新治는 아버지의 묘지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도 아버지도, 또 자기의 적도 묘지에 묻혀 있음을 본다. 묘지 앞에 세워진 묘석들은 마치 바다에 정박해 있는 배의 흰 돛처럼 보였고, 그 배는 영원히 바다로 떠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墓地には冷たい朝風が吹き迷うつてゐた。……夜あけの薄明のなかの墓石は、段賑な港に碇泊してゐる多くの白い帆舟のやうに見える。」⁴⁴⁾

(묘지에는 차가운 새벽 바람이 불고 있었다.…… 새벽 어스름속에 파묻힌 묘석들은 떠들썩한 항구에 정박해 있는 많은 흰 돛단배처럼 보인다.)

44)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12.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父の墓の前へ來ると，母は花を活け，風に吹き消される燐寸を何本となく擦つて線香に火をつけた。」⁴⁵⁾

(아버지 묘앞에 이르자 어머니는 꽃을 꽃고 바람에 꺼지는 성냥불을 여러 개 실패한 후 향을 피웠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의 用例를 들어 보자.

「塚は細い小徑の奥にあり，巨きな楓と朽ちはたてた梅の古木とにはさまれてゐる小さい石塔にすぎなかつた。」⁴⁶⁾

(무덤은 좁은 길 안쪽에 있는데 거대한 단풍나무와 다 썩어버린 매화나무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마한 석탑에 불과했다.)

묘지는 인생의 마지막 정착역이다.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 일지라도, 또는, 거룩하고 훌륭한 영웅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묘지에 묻히게 된다. 찬 북풍이 불어 차가운 새벽이 되어도, 또 태양이 내리 쬐는 한 여름일지라도 묘비는 말없이 서있다.

아버지 묘앞에 어머니는 꽃을 꽃으면서 지난날의 幻影을 더듬어 보지만 슬픔만 생생하게 떠오른다. 향을 피워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역시 인간은 묘지 앞에 서면 人生無常을 느끼고 만다.

모든 인간은 한낱 초토가 되어 自然으로 되돌아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지금까지의 空間的 자연관을 살펴 보았다. 주인공 新治와 初江이 아름다운 「歌島」 섬의 등대에서 자주 만났다. 八代神社의 부적은 그들의 신변을 항상 돌보아 주었다. 觀的 視에서 그들은 사랑의 큐피트를 쏘아

45)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12.

46)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83.

맞추었다.

또 辨天押에서 남녀의 사랑의 소문은 더 퍼져 나갔으며, 데끼왕자 고분에서 시련 속에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꿈을 통해 미리 예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묘지에서 人生無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인생이란 모두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자연의 이치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2. 自然의 表象

자연의 표상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분류할 수 있다. 氣象의 표상은 구름, 바람, 폭풍, 태풍, 우뢰, 번개 등을 들 수 있고, 또 안개, 비, 소나기, 비말이나 눈, 진눈깨비 등 물을 포함하는 강수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도 있으며, 파도 소리, 햇빛 등 빛이나 음향으로 나타내는 것 등 자연의 형태도 다양하다.

우주 천체로 나누어 보면 별, 달, 해 여러 행성 등을 말할 수 있다. 또한, 동식물의 표상도 관찰할 수 있으며, 모든 삼라만상이 자연 표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광대하게 생각하면 환상주의나 허무주의, 영혼의 영역까지 생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연 표상은 무한한 자연의 전부가 포함되고 있다.

1) 氣象 表象

春夏秋冬의 四季의 변화와 교체가 뚜렷한 극동 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일본의 氣象表象은 철따라 바뀌어 가는 자연환경의 모습이 기상 특징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시간적 현상으로 작품 『潮騷』에서는 봄, 여름의 6개월 간의 自然과 氣象이 잘 나타나 있다. 기상에 따른 자연 현상인 천체, 우주의 변화

와 천둥, 번개, 바다와 파도 소리 등 자연 현상을 살펴 보기로 하자.

또 작품 『金閣寺』에서도 四季의 기상 표상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氣象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하자.

① 구름, 우뢰

구름은 여름을 상징하는 자연의 표상으로서 비구름은 무섭게 격동하는 폭풍우의 전야를 상징한다.

그러나 흰구름은 나그네가 오래전에 떠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를 나타내거나, 쉬지않고 움직이는 구름은 인간의 삶의 변화와 같이 부단히 역동하는 정서를 표출해 내고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薄暮の沈靜な光芒が、雲のはざまから流れ落ちてゐるのを見るだけであつた。」⁴⁷⁾

(적막한 어둠의 빛이 구름 사이로부터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水平線上の夕雲の前を走る一艘の白い貨物船の影を、若者はふしぎな感動を以て見た。世界が今まで考へもしなかつた大きなひろがりをも、そのかなたから迫つて来る。」⁴⁸⁾

(수평선상의 저녁 구름 앞을 달리는 한 척의 흰 화물선 그림자를 젊은이는 묘한 감동을 가지고 보았다. 세계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너비를 가지고 그쪽 너머로부터 다가온다.)

이번에는 여름 구름의 用例를 들어 보자.

47) 三島由紀夫, 日本文學全集68(三島由紀夫集)『潮騒』新潮社, 1965, p. 221.

48)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04.

「沖には夏雲が聳え立つてゐる。」⁴⁹⁾

(먼 바다쪽에는 여름 구름이 뭉게뭉게 솟아나고 있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의 用例를 들어 보자.

「海の方角では、さつきと同じやうに、誰に見せるともない、雲のゆつたりした重々しい戯れが續いてゐた。雲は自然のあてどない衝動の反映でもあるかのやうだつた。」⁵⁰⁾

(바다쪽에서는 아가와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보이려는 것도 아닌 여유있고 무거워 보이는 구름의 회롱이 계속되고 있었다. 구름은 자연의 목표없는 충동의 반영이기라도 한 것 같았다.)

이번에는 우리의 用例를 들어 보자.

「この未知の世界の印象は遠雷のやうに、遠く轟いて來てまた消え去つた。」⁵¹⁾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상은 먼 우뢰와 같이 멀리서 울려오고는 이내 곧 사라진다.)

구름의 표상에서 저녁 구름은 석양 햇빛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기도하고 한 여름의 뭉게 구름은 그지없는 여유로움과 한가한 생활을 표현해 주고 있다. 또한, 구름은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게 만든다.

② 바람, 폭풍, 태풍.

매년 유월부터 구월동안 일본에서 여름에는 태풍이 내습해 오며, 기상예에 따라 피해가 심하므로 이 『歌島』섬에서는 항상 날씨에 대하여 심

49)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70.

50) 三島由紀夫, 『日本文學全集68(三島由紀夫集)』『金閣寺』新潮社, 1965, p. 440

51)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04.

각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몹시 더울 때, 바람은 땀을 식혀주는 상쾌한 바람이지만 대기의 대순환으로 태풍이나 폭풍으로 불어 올 때는 장마와 천둥, 번개, 홍수 등의 계절적인 대재난을 일으킨다.

특히 여름에는 안개, 비, 비말 등이 자주 나타나고, 비가 내리며 또한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강열하게 격변하는 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생 각하게 한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風がわたつて來て、松の梢々はさわいだ。社の暗い奥にまで、そのとき吹き入つた風が森嚴な響きを立てた。海神は若者の祈りを嘉納したやうに思はれた。」⁵²⁾

(바람이 불어와서 소나무 가지들이 흔들렸다. 진자의 어두운 구석까지 불어든 바람이 엄숙한 울림 소리를 냈다. 海神은 젊은이의 정성어린 기원을 받아들여 준것 같이 보였다.)

이번에는 폭풍의 用例를 들어 보자.

「この時帯に嵐が、窓の外で立ちはだかつた。それまでも風雨はおなじ強さで廢墟をめぐつて荒れ狂つてゐたのであるが、この瞬間に嵐はたしかに現前し、高い窓のすぐ下には太平洋がゆつたりとこの持續的な狂躁をゆすぶつてゐるのがわかつた。」⁵³⁾

(이때 갑자기 폭풍이 창을 가로 막았다. 그 전에도 비바람은 줄기차게 동일한 힘으로 폐허 안을 휘몰아 치고 있었는데, 이 순간 폭풍은 확실히 눈앞에 현전하고, 동시에 높직한 창 바로 밑에는 태평양이 침착한 이 지속적인 狂躁를 흔들고 있는 것이 의식되었다.)

이번에는 태풍의 用例를 들어 보자.

52)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07.

53)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35.

「彼は颱風の去つたあとの澄明な青空と、亞熱帶の太陽に照らされた禿山のけしきと、何事もない海の煌めきとを見るのであつた。」⁵⁴⁾
 (그는 태풍이 지나간 뒤의 그 청명한 창공과 아열대의 태양아래 드러나 있는 섬풍경과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번쩍이고 있는 찬란한 바다를 말없이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金閣寺』에서 곱풍의 用例를 들어 보자.

「風はそのまま劫風のやうに無限に強まり、私もろとも金閣を倒壊させる兆候のやうに思はれたのである。」⁵⁵⁾
 (바람은 그때부터 곱풍처럼 무한히 강해져 나와 金閣을 한꺼번에 쓰러뜨릴 징조처럼 여겨졌다.)

강한 바람은 소나무 가지도 흔들기도 하고 폭풍이 섬 마을에 휘몰아쳐 오면 태평양의 넓은 바다가 미친듯 지속적인 광조에 휘말리는 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는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바다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바람은 역시 곱풍처럼 강하게 불어서 金閣寺도 쓰러뜨릴 기세이다.

바람도 위력에 따라 바람, 폭풍, 태풍, 劫風까지 종류도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섬 사람들은 거의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바람과 친숙하게 살고 있다.

③ 안개, 비, 소나기. 비말.

공기 속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떠 있으면 안개이고, 수증기가 대기 상층에서 변화함에 따라 비가 되거나 소나기로 변한다. 안개 낀 부두를 걷는다든가, 안개 자욱한 공항을 보면 어디인가 먼 곳으로 떠나고 싶거나, 떠난 옛날 고향이 연상되기도 한다.

54)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87.

55)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95.

또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 만물이 생생하게 생기를 되찾고, 사람은 상쾌하고 시원한 기분을 느낀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큰 재난을 당하기도 한다. 날씨가 가물어 온 천지가 바싹 말랐을 때, 내린 소나기는 대지를 적셔주는 구원의 손길처럼 느낀다.

그러면 안개에 대한 用例를 들어 보자.

「いちめに霞のたなびいた伊勢海を眺めてゐる。霞のなかから知多半島の端の師崎のあたりがわづかにみえる。」⁵⁶⁾
(온통 안개로 덮인 이세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안개 속에서 知多 반도의 끝머리가 어슴프레 보인다.)

이번에는 『金閣寺』의 用例를 들어 보자.

「規則正しく、保津川から上る霧がこの地方を限なく包んだ。その霧はたえず流動してゐて、途切れるのは稀であつた。」⁵⁷⁾
(거의 규칙적으로 호즈강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이 지방을 구석구석까지 감싼다. 그 안개는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어 좀처럼 끊어지는 일이 없었다.)

이번에는 비에 대한 用例를 들어 보자.

「雨まじりの強風が夜中に吹きだし、悲鳴や笛のやうな響きは、海からも空からもきこえた。」⁵⁸⁾
(비를 섞은 강풍이 밤새 불어오고 비명같기도 하고 휘바람같기도 한 울림은 바다로부터 또 하늘로부터도 들려왔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 소나기의 用例를 들어 보자.

56)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57.

57) 三島由紀夫, 『金閣寺』 前掲書, p. 432.

58)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28.

「一年のうち、十一月十二月のころには、たとへ雲一つないやうに見える快晴の日にも、一日に四五へんも時雨が渡つた。私の變りやすい心情は、この土地で養はれたものではないかと思はれる。」⁵⁹⁾
 (일년중 십일월이나 십이월 경에는 비록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라 하더라도 하루에 네다섯번씩 소나기가 스쳐갔다. 나의 변덕스런 성격은 이 고장에서 키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는 飛沫에 대한 用例를 들어 보자.

「港内の波は甲板を洗ふほどではなかつたが、風が撒きちらしてゐる波の飛沫は、逆巻く霧になつて視界を覆うた。」⁶⁰⁾
 (항내의 파도는 갑판을 휩쓸 정도는 아니었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비말은 안개처럼 시야를 가로 막았다.)

안개, 비, 소나기, 비말에 대한 내용은 전부 굿은 날씨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날씨에 따라 인간은 이러한 자연 현상으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친다고 해도 인간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여 왔고, 또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 왔다.

④ 밤, 달과 별, 별빛

자연의 유기적 순환에 따르면 하루를 나누어 보면 새벽은 탄생, 낮은 성장, 저녁은 쇠퇴, 밤은 소멸을 뜻한다고 한다. 또 별들은 무수히 많고, 그 별들도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별들 내부에 수소가 있다면 에너지가 생산되고, 밝게 반짝일 것이다. 또 행성들은 달을 위성으로 가지고 있으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모든 것이 신비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밤과 낮이 바뀌어 가는데, 그 속에서

59)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299.

60)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83.

인간의 사고와 회노애락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우주와 천체계의 신비성을 잘 나타나 있으며, 더욱 우주에 심취해 보면 인간과 영혼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려는 마음을 품게 한다.

밤에 대한 用例를 들어 설명하여 보자.

「夜はいつそ一人で，島の諸方のあまり人の行かない場所をさまよひ歩き，鬱を紛らすことがあつた。」⁶¹⁾

(밤에는 오히려 혼자서 여기저기 별로 사람들이 가지않는 장소를 서성거리며 울분을 잊는 수가 있었다.)

이번에는 밤에 대한 『金閣寺』의 用例를 들어 보자.

「夜だと，ところどころ斑らに月光を浴びた白い木組は，怪しくも見え，なまめかしくも見える。」⁶²⁾

(밤이 되면 군데군데 달빛을 받는 하얀 기둥들은 괴상하기도 보이고 요염하게도 보인다.)

이번에는 달과 별에 대한 用例를 들어 보자.

「月がうまい具合にその顔を照らしてくれる時を除いて，女の顔は影に包まれて見えた。」⁶³⁾

(달이 마침 그 얼굴을 비쳐주는 날을 제외하고는 대개 여자의 얼굴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별에 대한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人々は星明りの下で立ち働いてゐる。舟は算盤に乗せられて，大ぜいの掛聲と共に，しぶしぶ水際へむかつてにじり降りる。」⁶⁴⁾

61)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1.

62)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09.

63)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1.

(사람들은 별빛 아래서 분주히 일하고 있다. 배는 주판 위에 올려져서 많은 사람들의 영차 소리와 더불어 서서히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어두운 밤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혼자서 생각하는 일이 있을 때, 특히 별이 반짝이고 휘황찬 달빛이 비추일 때는 추억이 되살아 나거나 한탄하는 일이 많다. 타향살이 할 때는 고향 생각이 나고, 부모, 형제, 친구들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이 되면 여기저기 서성거리며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키려하며 여자들은 한 맺힌 마음을 숨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歌島』에서의 사람들은 밤에도 별빛 아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별과 달과 인간은 뗄 수 없는 자연에 가려진 실루엣 속에서 思考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⑤ 햇빛

햇빛은 대자연을 움직이는 원천적 힘이다. 유기적인 순환을 통하여 열과 빛을 이용하여 온도를 조정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며, 인간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태양이 작열하는 여름의 햇빛은 야성적이고, 젊은 사나이의 용맹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작품 『潮騒』에 대한 用例를 들어 보자.

「山に遮られた島の南側には風がなかつた。日に照らされた太平洋は一望の裡にあつた。」⁶⁴⁾

(산으로 가리운 섬 남쪽에는 바람이 없었다. 햇빛에 쏟아지는 태평양이 한 눈에 들어 왔다.)

64)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58.

65)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10.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その坂の一曲りて、燈臺周邊の夕闇は、まだ仄明るい日没の名残の光線に變るのである。松のかげは暗く重複してゐても、眼下の海は最後の殘光を湛へてゐる。」⁶⁶⁾

(그 언덕의 굴곡 하나로 등대 주변의 저녁 어둠은 아직도 흰한 석양빛이 남아있는 것이다. 소나무 그늘은 어둡게 겹쳐 있어도 눈 아래 펼쳐진 바다는 최후의 잔광을 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의 用例를 들어 보자.

「遠い田の面が日にきらめいてゐるのを見たりすれば、それを見えざる金閣の投影だと思つた。」⁶⁷⁾

(저 멀리 논이 햇빛으로 번쩍이는 것을 볼 때면 나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긴까꾸의 후영이라고 생각했다.)

햇빛이 쏟아지는 태평양이 한눈에 보이는 「歌島」 섬의 아름다움을 표출해 내고 있다. 또 金閣寺 절이 햇빛에 비칠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주인공은 감탄하고 있다.

햇빛은 산에도 들에도 태평양 바다에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폭풍이 불거나 광란한 태풍이 비와 함께 내린 후의 햇빛은 확트인 미래를 보는 듯 인간의 희망찬 앞날을 예견해 주고 있다. 또 쏟아지는 햇빛은 보통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으며, 어둠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희망찬 의지의 뜻을 내포해 주고 있다.

2) 動植物의 表象

동식물의 표상은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서 관찰하여 보자.

66)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21.

67)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299.

동물의 종류로는 가축, 바다 새, 어해류, 또는 곤충 등을 관찰하여 보고, 식물로는 나무, 꽃, 이끼 등으로 나누어서 조사하여 보자.

동식물의 표상은 자연의 주체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의 순환의 이치에 따라 성장, 성숙, 쇠퇴, 죽음, 소생의 유기적인 주기에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1) 동물의 表象

동물의 표상은 일반적으로 운동 감각을 영위하고, 종속 영양을 취하는 생물로 나타난다. 즉 움직일 수 있고, 먹이를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지구에만도 수십만 종류가 있다고 하며, 사람, 동물, 새, 어패류, 또는 곤충까지 그 수는 한 없이 많다.

동물의 표상을 전부 표현할 수는 없으며, 작품 『潮騒』와 『金閣寺』에서 나타난 몇가지 동물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① 닭, 고양이, 새.

닭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나 사람이 잘 기르는 가축의 하나이다. 닭이 우는 소리는 보통 여명 속에서 새날이 밝아오는 것을 미리 알려 주는 전령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새벽의 서막을 여는 상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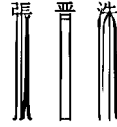
그 用例를 들어 보자.

「村へむかつて一段一段石段を下りてゆく二人の足もとから、そこかしこの
鶏鳴が繁くきこえた。」⁶⁸⁾

(마을을 향해 한층 한층 돌출계를 내려가는 두사람 발밑에 여기저기서 닭 울음 소리가 들렸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68)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45.



「見まはしても，人影はなかつた。鶏が二三羽小路をあゆみ，裏の家の貧しいつづじの花が，……」⁶⁹⁾

(돌아다 보아도 사람 그림자는 없었다. 닭이 두 세마리 골목 안에 있고, 뒷집 진달래가……)

이 작품에서는 여주인공 初江이 安夫의 비겁한 수작에서 벗어나 주인공 新治와 변함없는 사랑이 계속되리라는 희망을 닭 울음 소리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또한, 진달래가 피는 따뜻한 봄날 닭 두 세마리가 거닐고 있는 아주 한가한 섬마을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번에는 고양이의 用例를 들어 보자.

「家畜といへば，村の家並の間を段をなして流れ落ちてある石の小路に，くつきりと落ちた軒軒のでこぼこな影を，尻尾のさきで撫でながら降りてくる飼猫どもだけであつた。」⁷⁰⁾

(가축이라고 하면 마을 집체 사이로 난 돌길에 뚜렷하게 깔려있는 울퉁불퉁한 처마 그림자를 타고, 그 꼬리를 잘잘 끌며 내려오는 집고양이 정도라고나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섬 마을에는 동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고양이는 인간과 가장 친근한 애완 동물로 인식된다. 그 고양이의 털은 봄의 감각과 관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따뜻한 봄날 사람들은 일터로 나가고, 빈집을 지키며, 봄햇살을 즐기는 모습은 한가한 섬 마을을 직접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번에는 새(鳥類)에 대한 用例를 들어 보자.

「全島に鶯がしきりに啼いた。」⁷¹⁾

(섬 전체에 피꼬리가 성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69)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64.

70)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08.

71)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47.

작품 『金閣寺』의 用例를 들어 보자.

「そのあたりの朝は、鳥のさへづりがかまびすしく、鳥の姿は見えないで、林全體が囁つてゐた。」⁷²⁾

(이 부근의 아침은 새들의 지저귀음으로 시끄러우면서도, 새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 숲 전체가 지저귀는 것 같았다.)

봄이 되면 찌꼬리는 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운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여러 종류의 새들이 歸巢本能에 따라 숲속으로 모여들고 새벽이 되면 새들의 지저귀음으로 섬전체가 요란하고 떠들썩하게 울며 지저귀는다.

이번에는 갈매기의 用例를 들어 보자.

「船を追つてついて來てゐた一羽の鷗は、ふいに高く翔けあがり、その翼は鐵塔をこえて羽搏いた。」⁷³⁾

(배를 쫓던 한마리의 갈매기가 갑자기 높이 솟아올라 그 날개는 철탑을 넘어 하늘 높이 날았다.)

갈매기는 바다의 상징적인 조류이며, 배를 쫓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한다. 어부들은 갈매기가 있는 곳은 고기가 많다고 하여 길조라고 한다. 그래서 작가는 갈매기를 희망으로 상징하였으나 그 갈매기가 갑자기 하늘 높이 솟아 올라 날았으므로, 작가는 희망이 멀어지리라는 예감을 표현하려 하였으며, 나쁜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다.

이번에는 가마우찌(사다새)의 用例를 들어 보자.

「このあたりから鵜がしばしば波間を泳いでゐる。」⁷⁴⁾

72)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24.

73)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27.

74)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28.

(이 근처에는 가끔 가마우찌가 파도 위를 헤엄치고 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歌島の鵜は候鳥だったので、この季節に鵜は徐々に姿を消した。」⁷⁵
 (우다지마의 사다새는 候鳥였으므로 이 계절부터 가마우찌는 조금씩 모습을 감추었다.)

가마우찌(사다새)가 파도 위를 헤엄치고 있는 광경을 통해 바다가 평온함과 한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봄이 오면 候鳥인 가마우찌의 모습은 사라지고 바다는 평화롭고 잔잔해진 바다는 쓸쓸하게 느껴진다. 이와같이 주인없는 공간은 비련의 느낌을 준다. 자연은 항상 유동적인데 비하여 문학에서는 감정이 나타나며 이로써 자연과 문학의 충돌이 표출된다.

② 거북이, 상어. 조개, 게.

거북이는 신화와 창성의 토템 숭배 사상(ト-テミズム)을 나타내고 있다. 또 장수, 부귀, 행복 등을 표상하고 있다.

거북이의 用例를 들어 보자.

「舊盆の四五日前に、古里の濱に大きな龜が上つたのである。」⁷⁶
 (구봉 사오일 전에 우다지마 마을 앞 바다에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온 것이다.)

거북이는 예로부터 오래살고 영험한 동물로, 십장생 안에 들어있는 동물중 하나다. 그래서 십장생을 예로 들면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을 말한다. 이러한 신선사상은 중국에서

75)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47.

76)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87.

한국을 거쳐 일본에까지 정신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커다란 거북이 한마리가 올라온 것은 이 마을에 곧 경사스럽고 행복한 일이 생기고, 즉 주인공 新治와 初江이 결혼하게 되고, 오랜동안 잘 살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다.

이번에는 상어의 用例를 들어 보자.

「かれらはその豎抗に、舊六月十六から十八日のあひだに、七疋のまつ白な鯨がどこからともなく現はれるといふ言ひ傳へを思ひ出して戰慄した。」⁷⁷⁾
(그들은 그 깊은 갯도에 음력 유월 십육일부터 십팔일 사이에 일곱 마리의 흰 상어가 어디선지 나타난다는 전설을 생각해내고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상어는 생긴 모양부터 공포감을 준다. 몸체는 크고 피부는 단단하고, 방패 비늘로 덮여 있으며, 예비 이빨을 가지고 있어 야성적이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래서 상어는 두려움의 표상이고 식성이 좋은 어류로 온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두려움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상어의 전설을 등장시킨 이유는 新治와 初江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이번에는 조개의 用例를 들어 보자.

「彼の足許には小さな美しい桃色の貝が落ちてゐた。」⁷⁸⁾
(그의 발밑에는 조그마한 아름다운 조개가 굴러 있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突然、初江が新治のはうを向いて笑ふと、袂から小さな桃いろの貝殻を出

77)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48.

78)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30.

して、彼に示した。」⁷⁹⁾

(갑자기 하쓰에〈初江〉가 新治 쪽을 돌아보며 웃는 낮으로 소매에서 조그마한 연분홍 조개 껍질을 내놓고 그에게 보였다.)

조개는 단단한 조가비에 싸여 있고 속살은 부드럽고 연하지만 껍은 단단한 껍데기로 되어 있다. 이처럼 조개가 내포하고 있는 뜻은 주인공 新治와 初江 역시 부드럽고 단단한 사랑으로 맺어져 있으며 어떠한 방해에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의 큰 힘을 나타내려는 점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조개는 여인을 상징하고 있으며, 新治는 발밑에 있는 조개를 주워서 사랑하는 初江에게 마스코트로 준다. 그녀는 그 조개를 사랑이 이루어 졌을 때, 그것을 新治에게 보이고 사랑을 확인한다.

이번에는 게의 用例를 들어 보자.

「その表面は滑らかで、ところどころにあいた小指ほどの穴は蟹や濱蟲の棲家になつてゐた。」⁸⁰⁾

(그 바위의 표면은 미끄럽고, 군데군데 뚫린 손가락만한 구멍은 게<蟹>들의 집이 되어 있다)

魚蟹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게는 바다의 전령사이다. 봄의 바다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준다. 게의 표상은 한쌍의 앞발은 집게형으로 옆으로 기어다니는 역할을 하며, 한쌍의 촉각은 안테나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자기의 신변보호를 한다. 갯벌을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구멍이 있으며 갯벌을 기어다니는 게들에게서 바다 봄의 정취와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79)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97.

80)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70.

③ 꿀벌, 나비, 매미, 개미, 쓰르라미.

흔히 인간이 생각하는 서정 공간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인간의 정서와 심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매개가 되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꿀벌, 나비로서 이들은 봄을 상징하고, 매미와 개미등은 여름을 상징하게 한다.

꿀벌의 用例를 들어보자.

「密蜂はかういふ空家を自由に訪問し、がらんとした家のなかをとびめぐり、一直線に鏡にぶつかつてはおどろくのであつた。」⁸¹⁾

(꿀벌들은 이러한 빈 집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고 텃빈 집 속 거울에 부딪쳐선 놀라는 것이었다.)

벌은 입이 씹거나 빨기에 알맞게 되어 있고 몸 끝에 산란관의 독침이 있어서 적을 막는다. 흔히 벌은 남성을 상징하고 꽃은 여성을 표현한다. 이 감각적 이미지는 순결과 진실성이라는 관념과 밀착되어 있어 묘한 위양스를 나타낸다. 꿀벌이 섬 마을의 빈 집이나 가고 싶은 어느 곳의 꽃을 찾아 다닌다. 『潮騒』의 用例에서는 대단히 고요하고 한가한 섬 마을을 묘사 하려고 노력한 면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나비의 用例를 들어 보자.

「風はおだやかにみえても、蝶の柔らかい羽にはきつく當つた。」⁸²⁾

(바람은 평온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부드러운 나비의 날개에 세차게 부딪쳤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蝶は高く舞ひ上り、潮風に逆らつて島を離れようとしてゐた。」⁸³⁾

81)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61.

82)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63.

83)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63.

(나비는 높이 솟아올라 바닷바람을 무릅쓰고 섬을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비는 흔히 봄의 전령사로 생각하고 있다. 또 벌은 남성으로, 꽃은 여성을 상징한다. 우아하고 약한 나비가 강한 바람을 헤쳐나가듯이 여주인공 初江이 험난한 세파를 헤쳐나가려는 의지를 나타내 보여 주려는 내용이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에서 매미와 개미의 用例를 들어 보자.

「……寺の徒弟生活は規則正しく送られたが、私にはそれが、最後の、絶對的な休暇だつたやうに思ひ出される。その蟬の音もつぶさにきこえる。」⁸⁴⁾
(……절에서의 도제 생활은 규칙적으로 보내졌으나 나에게서 그것이 최후의 절대적인 휴가였던 것처럼 생각된다. 그 매미 울음 소리도 귀에 쟁쟁하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草に坐つて、數時間も、こまかい赤土を運ぶ蟻の巢の營みを眺めてゐたこともある。」⁸⁵⁾
(풀숲에 앉아 개미들이 조그마한 흙덩이를 날라다 집을 짓는 모습을 몇 시간이나 바라본 일도 있다.)

매미는 오랜 애벌레 생활과 짧은 생애에 대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고 한가하게 지낸다. 그렇지만 개미는 부지런하고 단결력이 있고 끈기있는 곤충으로 부지런함을 대변하는 곤충이다. 이러한 곤충을 의인화하여 매미처럼 게으르고 한가하게 즐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단결력이 강한 사람이 될 것을 본보기로 삼아 모든 사람의 표본의 기능으로 만들고자 했다.

84)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22.

85)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425.

이번에는 쓰르라미의 用例를 들어 보자.

「神社の裏手から松林の道へのぼつた二人は、夜の涼しさを今さらに味はつた。すつかり暮れてゐるのにひぐらしが啼いてゐる。」⁸⁶⁾

(진자 뒷길로 해서 송림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서늘한 밤공기를 새삼스럽게 맛 보았다. 해는 완전히 지고 어둠이 짙은데도 쓰르라미가 울고 있다.)

늦여름이 지나갈 무렵, 해는 지고 어둠이 짙어올 때, 쓰르라미가 울며, 여름이 지나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인공 新治와 初江은 오랫동안 많은 고통 속에서도 잘 참아 드디어 그들의 사랑을 인정받게 되고 쓰러린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그런데 쓰르라미의 울음 소리는 한결 쓸쓸하게 과거에 대한 연민을 되살려 준다.

2) 식물의 표상

식물로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종류로는 약 이십만 가지로 구별된다고 한다. 우선 꽃은 봄에 벚꽃, 진달래, 복사꽃이 피고, 장미, 백합은 여름에, 국화는 가을에, 동백꽃 등은 겨울에 핀다.

또 나무 종류로는 소나무, 전나무, 벚나무, 사철나무가 있고, 정원에는 정원수가 있다. 밀감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등 과일수도 있으며,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분재도 있다.

(1) 꽃, 나무, 이끼.

식물에는 꽃, 나무, 이끼등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다, 그 많은 식물 중에서 「歌島」섬의 식물과 「金閣寺」절의 山寺의 식물은 독특한 점이 있다. 이와같은 식물들을 각각 나누어서 살펴보고 관찰하도록 하자.

86)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94.

① 꽃

꽃은 보통 여인을 상징하여 잘 쓰여지며, 꽃이 피면 대자연의 아름다운 감정과 정신 감각이 솟아오르고, 또한 자연계의 조화 가운데서 가장 자극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봄 계절과 더불어 꽃은 피고, 꽃을 찾아다니는 나비를 보면, 마치 인생의 봄인 젊음과 아름다움을 비유한 듯 하다. 그러나 꽃이 피면 지듯이 언젠가는 인생의 젊음도 사라지며, 견잡을 수 없는 애상에 잠겨 우울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蒼蒼한 푸른 소나무를 찬미하고 꽃을 몹시 증오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꽃이 피는 것은 자연의 순환의 이치이고 대표적인 정경이다. 봄에는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어 있고, 소나무 사이에는 부드러운 풀숲 군데군데에 빨간 자운영 꽃이 피어 있다.

봄에 피는 꽃의 用例를 들어 보자.

「裏の家の貧しいつつじの花が、下方の海の色を葉かげに透かしてゐるだけである。」⁸⁷⁾

(뒷집 진달래가 저 아래 바닷빛을 그 가장귀 잎사이에 내 비쳐주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松の木の中のやはらかな草生のところどころに、赤いげんげの花が群がってさいてゐた。」⁸⁸⁾

(오솔길 주위에는 소나무 사이 부드러운 풀숲 군데군데 빨간 자운영 꽃이 더미지어 피어 있었다.)

이번에는 여름 꽃의 用例를 들어 보자.

87)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64.

88)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50.

「海に面した左方の崖の上には、花ざかりの濱木綿が凋落期の寝亂れたやうな花ではなく、官能的な葱のやうな白さのしたたかな花瓣を、紺碧の空へふりかざしてゐた。」⁸⁹⁾
 (바다로 면한 왼쪽 절벽 위에는 文珠蘭 꽃이 한창 그 관능적인 흰 꽃송이를 푸른 하늘에 내흔들고 있었다.)

작품 『金閣寺』에서 봄꽃의 用例를 들어 보자.

「十三世紀に吉野山の櫻を移植したと云はれる嵐山の花は、すでに悉く棄櫻になつてゐた。」⁹⁰⁾
 (十三世紀에 吉野山の 벚나무를 이식 했다고 하는 이곳 아라시산의 벚꽃은 이미 모두 지고 잎만 남아 있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五月の花々、チューリップ、スイートピー、アネモネ、ひなげし、などが斜面の花圃にさきそろつてゐた。」⁹¹⁾
 (오월의 꽃들인 튜립, 스위트피, 아네모네, 양귀비 등이 경사진 화단에 만발해 있었다.)

이번에는 가을 꽃의 用例를 들어 보자.

「それは確乎たる菊，一個の花，何ら形而上的なもの暗示を含まぬ一つの形態にとどまつてゐた。」⁹²⁾
 (그것은 확고한 국화, 한송이 꽃, 아무런 형이상학적인 암시를 포함하지 않는 하나의 형태로 머물러 있었다.)

봄에 피는 진달래와 자운영은 겨울 동안의 긴 침묵에서 깨어나 봄

89)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70.

90)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85.

91)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01.

92)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414.

소식을 전하는 반가움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또 벚꽃 나무는 봄이 되면 「歌島」 섬이나 「金閣寺」의 절에도 피고, 일본의 어느곳에도 활짝 피어 그 화사한 벚꽃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더욱 느끼게 한다. 또 여름이 되면 섬의 절벽 위에 핀 문주란 꽃이 「歌島」 섬에 활짝 피어 그 아름다운 정경은 난초의 여러 이미지 속에서 차별함이나 고고함 보다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미를 부각시켜 묘사하였고, 또 가을을 대표하는 국화는 형이상학적 의미로 숭고함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자연 현상은 섬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연의 조화를 느끼게 하고 있다.

② 나무

나무의 종류는 소나무, 일본 전나무를 비롯하여 과일나무, 정원수 등 수많은 종류가 있다. 소나무는 항상 「歌島」 섬을 푸르고, 울창하게 만들어 주며, 「金閣寺」 절의 소나무는 겨울에 눈이 내릴 때 소나무 잎에 쌓인 눈이 장관을 이룬다.

또 가을이면 밀감나무에 열린 노란 밀감이 사람의 마음을 풍요하게 해주며, 감나무에 열린 몇 개의 감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때, 벌써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것을 서글퍼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新治は大王崎の巨松に凭りかかつてある少女の寫眞を、窓明りにつくづく見た。」⁹³⁾

(신지는 다이오오자끼의 커다란 소나무에 기대서 있는 소녀의 사진을 창 빛으로 꼼꼼히 드러다 보았다.)

특히 소나무는 사군자의 한가지로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태의 모습을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윤리적인 규범에 비유하여 관념적으로 나타내려 하고 있다. 즉 엄동설한에도 변하지 않는 높은 절개와 굳은

93)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78.

지조의 표상으로 나타내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의지가 강한 여인으로 소나무를 상징하여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작품 『金閣寺』의 用例를 들어 보자.

「庭の陸舟松は、積つた雪をまばゆくかがやかせてゐるので、それがまるで折り疊んだ眞新らしい帆のやうであつた。」⁹⁴⁾

(정원의 소나무는 쌓인 눈이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어 마치 차곡차곡 개켜 놓은 새 돛과도 같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金閣をめぐる赤松の山々は蟬の聲に包まれてゐた。」⁹⁵⁾

(긴까꾸를 둘러싼 산들의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도 매미 소리가 요란 했다.)

섬에도 소나무가 몇 그루씩 서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여인이 소나무 옆에 기대고 있다는 사진의 의미는 여자가 소나무처럼 높은 절개와 굳은 지조의 상징으로 올바른 사회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은연중에 의미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金閣寺』의 山寺에서의 소나무는 울창한 숲을 연상케 해준다. 또 겨울이 되어 소나무에 쌓인 눈은 장관이고 비록 눈에 덮여 얼른 보기에는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마는 눈 속에 있는 소나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고, 소나무를 통해 탈속하는 자연을 표출하고, 사시사철 변함없이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끄떡없는 그 덕을 찬양하고, 소나무의 기상을 높이 칭송하고자 하고 있다.

94) 三島由紀夫, 『金閣寺』 前掲書, p. 355.

95) 三島由紀夫, 『金閣寺』 前掲書, p. 330.

③ 이끼

「歌島」섬의 냇가에 맑은 물이 흐르는 돌구덩이나 돌층계에 끼어 있는 이끼는 미끄럽게 만들고, 「金閣寺」山寺에서의 안마당 구석에 놓여 있는 물이 졸졸 흐르는 바위들 위에 끼인 이끼는 그 생명력에 자연의 조화를 깨닫게 한다.

이끼에 대한 用例를 들어 보자.

「苔蒸した岩のはざまから流れる清水をうけて石の槽がしつらへられ、水が槽へのりの滑らかな苔をこえて溢れるさまは、動いて流れてゐるやうではなく、丁度その苔の上に透明な美しい釉薬をたつぷりと施したやうにみえる。」⁹⁶⁾

(이끼 낀 바위 틈새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은 돌구덩이 변두리의 이끼를 적셔가며 찰찰 넘치고 있다. 그 모양은 움직이며 흐르는 것이 아니고, 마치 돌구덩이 변두리의 이끼 위에 물약을 담백 칠한 듯이 보였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彼女は石の道から迂回して川へ下りてゆく苔に覆はれた滑りやすい石段に足をかけた。」⁹⁷⁾

(그녀는 한길을 돌아 냇가로 내려가는 이끼가 끼어 미끄러지기 쉬운 돌층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번에는 작품 『金閣寺』의 用例를 들어 보자.

「薄暮の中庭の苔蒸した蹲踞の上に、私は一羽のとんぼが羽根を休めてゐるのを見た。夕空はその小さな圓形の水の上に、墮ちてゐた。」⁹⁸⁾

(어둠컴컴한 안마당의 이끼 낀 쓰구바이 위에 날개를 쉬고있는 잠자리를 보았다. 저녁 하늘이 그 자그마한 원형에 고인 물 위에 비쳐 있었다.)

96)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42.

97)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90.

98) 三島由紀夫, 『金閣寺』前掲書, p. 341.

이끼는 고목이나 바위의 습한 곳에서 자생한다. 이끼는 수천년의 생명력의 긴 역사를 가지고 과거와 현재 속에 연장되고 또 미래로 흘러가는 것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화시키며 오직 한결같이 항상 푸르름을 지키고 있다. 물약을 뿌려놓은 듯한 진한 녹색의 이끼 위로 흐르는 맑은 물은 세계, 사상, 감정을 분리시키지 않고 유구한 오랜 역사성을 방어 하려는 듯 미끄러운 막으로 덮여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곳에서 자라지만 냇가에 맑은 물이 흐르는 돌구덩이에 끼어 있는 이끼는 자신을 미끄럽게 만들어 남들이 자신을 밟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다. 이끼는 수백년 동안 오랜 세월 자연 보존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3. 自然觀

三島由紀夫의 작품 『潮騒』에서 나타난 자연관은 일본인에게는 자연 숭배 사상을, 환경 공해와 오염 물질 속에 빠져있는 현대인에게는 자연에 대한 순수 사상을 고취시키려 하고 있다.

자연의 표상으로 바다는 어부에게 있어서 농민의 토지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또 밭고랑의 벼나 보리 대신에 푸른색 일색의 물결의 발이 출렁거리는 것을 표현해 내고 있다.

그 당시에 있어서도 「歌島」 섬의 모든 주민들이 거의 비누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공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歌島」 섬을 일본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살기좋은 평화를 상징하는 섬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또 도둑도 없고, 정직한 마음씨를 가지고 도덕성과 양심과 신념이 있고, 용기가 있으며, 사나이다운 미풍양속을 지닌 착한 사람만이 사는 곳으로 만들어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섬을 이룩하자는 순수 자연에 대한 사상을 고취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것이 三島由紀夫의 自然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의 自然觀에는 또 천륜이 살아 숨쉬는 부모 자식간의 사랑과 늙어 부모를 모시는 유교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아울러 인간의 미래를 무사하고 행복하게 이끌어 주는 고뇌에 찬 인생 항로에 광명과 평화의 등불을 비춰주는 자연이 숨쉬는 땅,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섬으로 만들어서 살려고 하는 자연에 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다. 이와같이 섬 사람들은 모두 자연쪽 편을 들고 있으며, 대자연도 이들에게 신의 은총을 내려주고 있다. 또한 자연이 이 풍요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축복하게 해 주려는 점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1) 大自然

대자연에는 우주에 떠도는 모든 항성부터 생각하며,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 기상으로 나타난 바람, 구름, 비, 눈보라등 모든 삼라만상이 대자연 속에 포함된다.

강, 바다, 산등 산천과 꽃과 나무등 초목이 모두 이에 속한다. 대자연에는 동물, 식물, 곤충도 포함되며, 인간도 공기와 물을 마시며 그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입자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작품 『潮騷』속에서의 대자연을 用例를 들어보자.

「自然も亦、かれらに恩寵を垂れてゐた。昇りきつて伊勢海をふりかへる。すると夜空は星に充たされ、雲といへば知多半島の方角に、ともどき音のきこえない稻妻を走らせてゐる低い雲が横たはつてゐるだけであつた。潮騷も烈しくはなかつた。」⁹⁹⁾

(대자연도 역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고 있었다. 계단을 다 올라서서 伊勢 바다를 돌아다 본다. 그러자 밤하늘은 별로 가득찼고, 구름이라고 하면 知多 반도쪽에 때때로 소리 안나는 번개불을 번쩍이고 있는 낮은 구름이 끼어 있을 뿐이었다. 밀물 소리도 높지 않았다.)

99) 三島由紀夫, 『潮騷』前掲書, p. 294.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新治は日々の生活に、別に音楽を必要としなかつたが、自然がそのまま音楽の必要を充たしてゐたからに相違ない。」¹⁰⁰⁾

(신지는 나날의 생활에 별로 음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연이 그대로 음악의 필요를 충당해 주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若者は彼をとりまくこの豊饒な自然と、彼自身との無上の調和を感じた。彼の深く吸ふ息は、自然をつくりなす目に見えぬものの一部が、若者の體の深みにまで滲み入るやうに思はれ。」¹⁰¹⁾

(젊은이는 그를 에워싼 이 풍요한 자연과 그 자신과의 이 이상 더 할 수 없는 조화를 느꼈다. 그가 들이쉬는 호흡은 자연을 창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일부분이 자기의 체내 깊숙이 스며드는 듯 느껴졌으며)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この永い果てしれない酔ひ心地と、戸外のおどろな潮の轟きと、梢をゆるがす風のひびきとが、自然の同じ高調子のうちに波打つてゐると感じた。」¹⁰²⁾

(이 길고도 끝없는 도취감과 바깥의 파도 소리가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 소리들이 대자연의 동일한 박자 속에 혼연일체가 되어 물결치고 있다고 느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島の人たちはあげて自然の味方をし、自然の肩をもつのであつた。」¹⁰³⁾

100)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17.

101)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17.

102)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36.

103) 三島由紀夫, 『潮騒』 前掲書, p. 238.

(섬 사람들은 모두 자연쪽 편을 들고 있는 것이었다.)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あそこでは一應(自然)は征服されてゐたし、のこる自然の威力は敵であつた。」¹⁰⁴⁾

(거기서는 일단 <자연>이 정복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자연의 위력은 적이었다.)

작품 『潮騒』에서 작가는 대자연의 신비성과 인간과의 관계를 혼연일체가 되도록 하여 자연에 대한 순수한 의식을 표현해내려 하였다. 일 본인의 자연 사랑을 생활화시켜 음악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2) 人間과 環境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구성, 불변성, 불멸성 등을 자연의 속성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안주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친화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공해가 심해지면서 숨쉴 수 없는 도시의 배기 가스, 처리할 수 없는 오물 등 물질문명의 병폐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인간은 자연과 친숙해지려 하였다.

마침내 현대인들은 문명의 질곡과 이 질곡속에서 빛어지는 여러가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을 되찾고 자연을 중시하게 되었다. 산의 푸르름과 새들의 지저귀, 그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움과 상쾌함을 준다. 아름답고, 오묘한 식물들 그 속에서 생을 향유하는 야생 조수들이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을 인간은 희망하고 있다.

104)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38.

이러한 아름다운 환경은 모두 동식물과 자연에 의해 성립되고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四季는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진 자연,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 낙엽, 열매, 겨울에는 눈에 쌓인 나무의 기묘한 생김새를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자연에 대한 사상은 인간의 유전과 환경을 중시하여 인간 생활의 병폐를 치료하고 자연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인간 생활에서 도덕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드려는 작가의 기도가 이 작품에서 잘 나타나 있다. 자연환경에서 『歌島』 사람들은 바다는 농민들의 토지의 개념과 같이 생각하였고, 또 그 사람들은 자연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누(삼푸)조차 사용하지 않고 세탁을 하려 하였고, 공해와 오염 물질을 방지하려 하였다. 이와같이 깨끗한 자연환경으로 무릉도원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 用例를 들어 보자.

「どこを航海してゐても島のことを忘れず、島の景色が日本で一番美えやうに、(歌島の人はみんなさう信じてゐた) またア、島の暮しはどこよりも平和で、どこよりも仕合せになることに、力を協せるつもりでいるんや。」¹⁰⁵⁾
(어디를 항해하고 있어도 이 섬만은 잊지않고, 이 섬의 풍치가 일본에서 제일 아름답도록 <우다지마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또 섬의 생활이 어느곳 보다는도 평화롭고, 어느 지방보다는도 행복하게 되도록 힘을 쓸 작정 이야.)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どんなとき世になつても、あんまり悪い習慣は、この島まで來んうちに消えてしまふ。海がなア、島に要るまつすぐな善えもんだけを送つてよこし、島に残つとるまつすぐな善えもんを護つてくれるんや。」¹⁰⁶⁾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아주 나쁜 습관은 이 섬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105)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22.

106)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23.

해야 돼, 바다가 말아야, 섬에 필요한 올바른고 착한 것만 보내주고, 또 섬안에 남아 있는 좋은 것만 지켜줄거야.)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そいで泥棒一人もねえこの島には、いつまでも、まごころや、まじめに働いて耐へる心掛や、襄腹のない愛や、勇氣や、卑怯なところはちつともない男らしい人が生きとるんや。」¹⁰⁷⁾

(그렇게 되면 도둑이 하나도 없는 이 섬에는 언제까지나 진실과 정직하게 일하고 참는 마음씨, 거짓없는 애정, 용기. 그리고 또 비겁한 대가 하나도 없는 사나이다운 사람들만이 살아가지 않겠어.)

또 다른 用例를 들어 보자.

「おれはいつか、働いて貯めた金で機帆船買うて、弟と二人で、紀州の木材や九州の石炭を輸送しようと思つとるがな。そいでお母さんに樂をさせてやり、年をとつたらおれも島にかへつて、樂をするんや。」¹⁰⁸⁾

(난 언젠가 꼭 내가 번 돈으로 紀州의 목재라든가 九州의 석탄을 수송하려고 해,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편히 해 드리고 늙으면 나도 섬으로 돌아와 편히 살테야.)

또 작품 『潮騒』나 『金閣寺』에 나타난 작가의 자연 사랑을 통해 물질 문명과 인간생활의 병폐를 치료하고 자연을 깨끗하게 하며, 또 생활에서 도덕성이 있어야 하고, 전통과 습관이 올바르고 거짓없는 사회와 도둑이나 사회악이 없는 도덕적이고 공해가 없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 用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가는 인간성 회복과 더불어 안정과 평화와 질서의 감각이 갖추어진 완벽한 세계를 『歌島』라는 섬을 통해

107)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23.

108) 三島由紀夫, 『潮騒』前掲書, p. 222.

현대인에게 보여주려는 작가의 의도가 나타나 있다.

Ⅲ. 結 論

작품 『潮騷』의 자연관을 통하여 일본의 자연에 대해 문학 사상을 살펴 보았다. 작품 『潮騷』에 나타난 일본의 문학 사상은 현실생활의 苦惱로부터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현실 도피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작품으로서, 『歌島』섬을 배경으로 자연적 낭만이 넘쳐 흐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자연과 사랑, 고뇌, 진, 선, 미, 삶과 죽음,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이 잘 표현되고 있다. 특히 작품 『潮騷』와 『金閣寺』에 나타난 해양 자연관과 산사의 자연관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고, 자연관의 정의와 자연이 일본에 끼친 영향 등을 기술하였다.

이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자연관과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귀소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번째는 산업혁명 이후 과학의 발달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자연은 급속도로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이 작품에 나타나 있듯 작가는 자연을 위해 비누까지도 사용하지 않고 빨래를 할 정도로 환경공해와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環境親和的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자연과 친숙해지려고 노력하여 왔고, 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을 벗삼아 왔다. 산의 녹음과 푸르름, 새들의 울음 소리와 지저귀, 그리고 아름답고 신기한 수많은 식물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이러한 자연환경은 우리 인간에게 상쾌함과 기쁨을 주어 왔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주로 동식물에 의해 조성되어 왔다.

프라이는 季節의 歲時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자연을 순환적인 상징으로 생각하였다.

봄은 첫사랑과 시련을, 여름은 활기차고 약진하는 계절로, 가을은 씨를 뿌린 곡식을 수확하는 계절로,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는 죽음과



서글픔과 인생무상을, 겨울은 자연의 적막과 새봄을 맞이하고 소생하는 四季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자연은 일년중 봄에는 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열매, 겨울에는 설경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사계절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사상은 일본에 있어서 얼마나 자연이 중요한가를 가르쳐준 일이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있어 기쁨의 원천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동기 부여를 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까지 이르러 온 일본은 환상적일 만큼 치산 치수를 잘 관리하여 왔고 환경도 상쾌할 만큼 잘 꾸며 왔다. 또 자연은 모든 인간에게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고 마음의 안식과 성실성, 순수함 그리고 병폐를 치유해 주는 역할까지 하게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준다.

두번째로 이 작품의 사상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서고금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잊지 못하고 늙어서 죽는 순간에는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즉, 중국의 「落葉歸根」(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의 명언처럼 귀소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래서 주인공도 늙어서 다시 고향인 「歌島」 섬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를 편히 모셔 드리려고 하고 있다. 즉 어머니는 고향을 의미하고, 고향은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는 의미로 표현하려는 것으로 간주했다. 고향과 어머니는 절대적인 인연이므로 그 누구도 인연을 가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귀소성이 강한 동물로서 코끼리나 여우가 있는데, 죽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며, 연어도 母川回歸本能처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와서는 산란을 하고 죽는다고 한다.

결국 인간도 동물의 일종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은 자연의 섭리이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회기성을, 다시 말해서 자연으로 되돌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작품에서 나타내려 하였다는 점을 결론으로 맺고져 한다.

參考文獻

- 三島由紀夫：『日本文學全集』68(三島由紀夫集)，新潮社，1965.
 村松剛：『三島由紀夫-その生と死』，文藝春秋社，1971.
 松本徹 編著：三島由紀夫，河出書房新社，1990.
 三好行雄(編)：『近代小説の讀み方(1)』有斐閣新書，1979.
 新潮社(編)：『三島由紀夫全集』30(評論“私の通歴時代”)1977.
 三好行雄(編)：三島由紀夫必携，學燈社，1970.
 遠藤嘉基 外：『日本文學史』，中央圖書，1981.
 磯田光一：『殉教の美學』，冬樹社，1979.
 相原和邦(外)：『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三島由紀夫』，有精堂，1975.
 白川正芳編：『批評と研究，三島由紀夫』，芳賀書店，1974.
 解釋と鑑賞：『三島由紀夫-その豐饒と不毛』，東京：至文堂，1978. 10.
 朝長のり 編著：日本文學論集，南榮文化社，1984.
 朴 尙均 譯：日本近代文學全集 6.『潮騒』，教育出版公社，1981.
 世界文藝大辭典(上)：成文閣，1975.
 新潮社(編)：三島由紀夫 全集 3，1977.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27，新潮社，1977.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30，新潮社，1977.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31，新潮社，1977.
 三島由紀夫：三島由紀夫 32，新潮社，1977.
 三島由紀夫：假面の告白，新潮文庫，1994.
 三島由紀夫：愛の渴，新潮文庫，1992.
 三島由紀夫：潮騒，新潮文庫，1986.
 三島由紀夫：金閣寺，新潮文庫，1989.
 三島由紀夫：花ざかりの森・憂國，新潮文庫，1986.
 尹致富：韓國海洋文學研究，學文社，1994.
 李善榮：문예사조사，民音社，1994.
 N. 프라이：批評의 解剖，한길사，1995.

어문연구 제7권 1997년 2월

보문소의 기능과 시제

Functions of Complementizers and Tense

김진석¹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functions of complementizers, and to analyse the temporal system of tense in independent clauses and complement clauses. It has often been observed that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Comp and Infl. For example, the selection of complementizers depends on whether or not Infl is tensed. Chomsky & Lasnik(1991) argues that Comp is not a feature of the verb and does not license trace of subject unlike inflectional elements. Following Enc(1987), it is assumed that S' is the maximal projection of Comp, that S is the maximal projection of Infl, and that S is the complement of Comp. Thus, Comp governs S. In this respect, Enc(1987) claims that a matrix Comp denotes the utterance time. Furthermore, Pollock(1991) and Chomsky & Lasnik(1991) argue that the internal structure of IP should be expanded to allow the functional categories of T, Neg, AGR to heads of their own maximal projections. The category headed by Tense(T) is Pollock's(1991) TP, a category dominating VP. In a vein similar to Pollock(1991), Chomsky & Lasnik(1991), and Lasnik(1993), temporal systems of tense in independent clause and complement clause are analysed by considering the reference time, the speech time, and the event time. Intervening

1 한국해양대학교 영어과 강사